

[2026 상반기 건설시장 결산]① '9032억' DL이앤씨, 상반기 公共 '수주킹'

기사입력 2026-06-30 05:00:37

<대한경제> 주요 건설사 실적 집계

DL · HJ · 계룡 · 동부 · 현대 'Top 5'

'제천영월 · 제2경춘道' 밀바탕

쌍용 · KCC · 태영 · 롯데 등 주춤

화성 · 동원, 두드러진 성장세



[대한경제=백경민 기자] 올 상반기 공공건설 시장은 제천~영월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초대형 종합심사낙찰제(중심제)가 실적을 좌우했다. 이들 입찰에서 성과를 낸 건설사들이 날아오른 반면, 이를 지켜봐야 했던 건설사들은 주춤했다.

29일 <대한경제>가 주요 건설사의 올해 공공공사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, DL이앤씨가 9032억원을 수주해 압도적인 격차로 1위에 올랐다.

DL이앤씨는 지난 1분기 중심제로 추진된 '남부내륙철도 5-1공구(1310억원)'와 '계양~강화 고속도로 6공구(1267억원)' 등 3건을 따낸 데 이어, 2분기 '제2경춘국도 5공구(937억원)'와 '동제주 복합발전소(4999억원)' 등 총 5건을 쓸어들었다. 특히 최근 한국동서발전의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단독 지분으로 맡아 수주공간을 두둑히 채웠다.

HJ중공업은 2분기 '제천~영월 고속도로 3공구(1488억원)'와 제2경춘국도 4공구(1044억원)' 등을 연이어 수주해 지난 1분기 10위권 밖이던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. 총 10건, 5691억원의 실적 중 중심·중평제가 8건, 4157억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, '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공사(955억원)' 등 기술형입찰도 힘을 보탰다.

계룡건설산업(7건, 5439억원)과 동부건설(7건, 4585억원), 현대건설(2건, 4325억원)도 대형 중심제를 중심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. 계룡건설산업은 제2경춘국도 1공구(2032억원)를 확보했고, 동부건설은 '계양~강화 고속도로 3공구(985억원)'와 '제천~영월 고속도로 2공구(1769억원)' 등 한국도로공사의 중심제에서 연이은 성과를 바탕으로 최상위권에 자리했다.

금호건설(7건, 4075억원)과 쌍용건설(3건, 4004억원), 남광토건(3건, 3847억원), IPARK현대산업개발(2건, 3700억원), KCC건설(3건, 3596억원)은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지만, IPARK현대산업개발을 제하곤 2분기 성과가 기대치를 밑돌아 1분기 순위 대비 대체로 내려

않았다.

11~15위권에는 △극동건설(3건, 3024억원) △태영건설(4건, 2723억원) △대보건설(4건, 2680억원) △HS화성(6건, 2673억원) △롯데건설(1건, 2456억원)이 포진했다.

이어 △코오롱글로벌(3건, 2128억원) △동원건설산업(6건, 2102억원) △HL디앤아이한라(2건, 2079억원) △한신공영(1건, 1899억원) △KR산업(5건, 1893억원)이 20위권에 안착했다.

이 중 HS화성은 '고양창릉 S-3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(2119억원)'와 '북합과학체험랜드 건축공사(144억원)'를 주축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상위권에 진입했고, 동원건설산업도 '부천역곡 A-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(832억원)'와 '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부지 조성공사 5공구(492억원)' 등을 발판 삼아 날아올랐다.

나머지는 대체로 주춤했다. 태영건설과 대보건설은 기술형입찰에서 선전했지만 대형 중심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순위 하락을 피할 수 없었고, 롯데건설도 지난 1분기 남부내륙철도 2공구 외 수주 낭보를 전하지 못했다.

백경민 기자 wiss@

〈© 대한경제신문(www.dnews.co.kr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〉

관련기사

- [2026 상반기 건설시장 결산] ㉔공사비 치솟고 대형공사 대거 지연...광역철도망에 겨우 버텼다
- [2026 상반기 건설시장 결산] ㉔'큰손' LH 설계용역 2건 불과...고난의 계절
- [2026 상반기 건설시장 결산] ㉔낙찰하한율 상향 '꽤거', 선금전용계좌 도입엔 '울상'



건설산업부

백경민 기자

wiss@dnews.co.kr

- 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' 앱을 다운받으시면
 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 - 명품 콘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